



제15호
2010년 10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발행인 최순삼 / 편집인 김진성 / 발행일 2010월 10월 15일 / 550-887 /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5588호 / ☎ 063 905-0218 (ex.227-0650)

더불어 사는 기쁨 함께 여는 통일 세상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소식

<http://blue21.or.kr>

내가 애지, 엄마야!

경중호(시인, 전주효림초)

내가 콩 먹기 싫을 때도

너도 나중에 엄마 됐을 때
편식하는 딸 있을,
좋겠어?

치, 먹을게!

내가 학원가기 싫을 때도

너도 엄마 되었을 때
공부하기 싫어하는 딸 있을,
좋겠어?

갈게! 갈게!

내가 동생하고 싸울 때도

네가 엄마 되었을 때
두 딸이 싸우면,
좋겠어?

알았어. 내가 참을게!

내가 하루 종일 짜증이 날 때도

네가 엄마 되었을 때
하루 종일 괜히 짜증내는 딸 있을,
좋겠어? 좋겠어?

휴!

그럼, 내가 지금 애지. 엄마야!



이미영 (이사장, 전주공교교사)

희망이 열매 맺기를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선선한 가을을 보내면서 지난여름을 되돌아봅니다.

지난여름, 저는 몇 몇 모임에서 교육희망을 마주하였습니다.

하나는 지난 7월, 우리단체에서 주최한 혁신학교 관련 연수에서 만난
초등 교사들의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교사의 꿈을 실천하고픈 젊은 교사들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창의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과의 만남입니다.

이일까지 동반한 학부모들은 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 창립식, 혁신학교 강연회, 순창지역간담회 등 모임
에 빠지지 않고 나와 주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학교, 농촌 지역의 교육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고픈 열망이
가득하였습니다.

이 열망에 교사들은, 우리 단체는 어떻게 부응해야 할까요.

새롭게 출범한 전북교육청의 달라진 지원 행정도 기대해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청소년(어린이) 독서캠프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 청소년(중학생)독서캠프를 거쳐 갔던 선배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어리기만 했던 아이들이 어느덧 예비교사가 되어서

후배들과 함께 토론하고, 체험활동을 이끌어주는 교육협력자로 성장하였더군요.

그러기에 회원들의 땀방울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10월입니다.

교육계와 지역사회에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품은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우리는 새 학교를, 교육 혁신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11월 20일, 독서한마당과「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밤」행사가 열리는 전주박물관에서 반갑게 만납시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0.10

이사장 이미영 드림

목차

02 여는 동시 내가애지, 엄마야

03 인사말 희망이 열매 맺기를

04 소식

전북교육감 선거 4차 교육정책토론회 개최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실시

문화원, 도교육감 후보자에게 “4대 분야, 10대 정책” 제안

전북 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 출범과 활동 시작

2010년 전반기독서교실 성과분석

어린이체험교실 운영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여는 통일강좌

제 2회 이사장배 배드민턴 대회

물빛 시원한통영으로 떠난가족 나들이

11 기획/특집 1 교육감에게 바란다.[교육정책제언]

13 기획/특집 2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실시

17 기획/특집 3 여름독서캠프 돌아보기

20 교육 시론 자율형 사립고, 그래도 절대 안돼!

22 서평 주제와변주

24 문화 다시보기/영화평 옛날 영화를 다시 보라!

26 탐방인터뷰 좋은교사모임, 좋은 교육을꿈꾸다

28 생태만화 꼬마애벌레 말강이

30 회원동정

31 「북녘어린이 공유유사업」 후원자모집, 회원 가입 원서

정책공약 분석과 정책제안을 위한 전북교육감 선거 4차 교육정책토론회 개최



그동안 문화원은 교육정책토론회를 교육의 달, 청소년의 달인 5월에 해마다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교육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정책토론회를 가져왔다.

2010년에는 전북도교육감 선거를 맞아 각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분석하고, 정책 제안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4차례의 연속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교육감은 2조원이 넘는 예산 운영, 교직원들의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리이다. 전북도민이 주인이 되어 참여하는 교육감선거가 되기 위해서 교육시민단체로서 문화원은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원 회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교육정책토론회는 농산어촌 교육, 청소년 및 학력, 교원 및 교육행정, 교육복지 분야 등으로 주제를 나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제,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비교 분석과 토론, 교육정책 제안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원 교육정책 제안 운동을 전개하였다.

2010 교육정책토론회 주제 및 일정

순	일정	분야	소주제
1	4.16(금)	농산어촌 교육	-농산어촌 교육정책
2	4.22(목)	청소년	-청소년 인권 -학력 신장
3	4.29(목)	교원 및 행정조직	-교원 인사 -교육행정조직
4	5.6(목)	교육복지	-교육복지 -무상급식 등
5	5.11(화)	총정리	-정책제안 총 정리

전북 청소년통일한마당 실시



전라북도교육청과 국립전주박물관, 전북겨레하나가 공동으로 후원하고 본원이 주관한 ‘희망 2010 제10회 전북 청소년통일한마당’ 행사가 6월 12일(토) 오전 09:00~12:30분까지 국립전주박물관 일원에서 열렸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토요일이었지만, 1,000여명의 초·중·고 학생과 지도교사, 학부모, 일반인들이 참가, 수상작, 행사 종합, 북한 우표 프랑과 한반도기가 펼쳐있는 식전 열린 마당 행사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행복해 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답게 보였다. 통일 시대를 주도할 우리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벼운 마음으로 알아보기 위해 기획된 5행시(주제: 통일한마당) 짓기는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문화원, 도교육감 후보자에게 “4대 분야, 10대 정책” 제안 김승환 교육감 등 정책 적극 수용

전북도민들의 삶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제 16대 도교육감 선거를 맞아 지난 4월 초부터 총 4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전문가와 교육주체, 시민단체 등의 교육적 요구를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교육의 변화와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4대 분야 10가지 정책”을 각후보자들에게 제안하였다.

그동안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2008년 첫 도민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도 정책제안을 통해 전북도민들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2009년에는 전북도교육감에게 “교육복지 정책 제안”을 하는 등 전북 지역의 올바른 교육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다.

한편 제안된 “4대 분야 10가지 정책”에 대해 16대 교육감에 당선된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대다수의 후보자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였다. 문화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제안된 정책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과 견제를 해 나갈 것이다.

제 16대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 정책 제안

- 제 16대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 정책 제안**

1. “전북교육정책연구원” 설립과 도교육청 내 “교육정책과” 신설

2. 21세기형 창의적 인재 양성 방안 마련

분야 2. 교육 복지 분야

3. 임기 내에 중학교까지 무상 급식 실시

4.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제정

5.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위한 “농산어촌 교육지원 조례” 제정

6. 교육복지 및 농산어촌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 “교육정책과” 산하 교육복지 및 농산어촌 교육 전담팀 운영
- 분야 3. 교육비리 척결 및 교원 인사 분야**

7.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 사정관제 도입 및 교육장 주민배심원제

8.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실시

분야 4. 학생 생활 및 인권 분야

9. 학생의 기본적 인권 신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10. 학생 자치 활성화와 청소년 동아리 및 문화 활동 지원 확대

전북 농촌지역 교육네트워크 출범과 활동 시작



지난 4월 16일 전북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 창립식이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교육실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본원 이사장인 이미영선생님이 상임대표로 선출되었으며 송병주(지역농업연구원) 이사장이 공동대표로, 사무국장 송승용(원평초 교사), 정책실장에 황영모(지역농업연구원) 정책실장이 선출되었으며 여태권(고산 읍곡교회 목사), 양병우(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박일범(순창제일고) 교장선생님이 지도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내빈으로 박세훈(전북대 교육학과)교수님, 한은수(원광정보예술고) 교장 선생님, 박종구(산내중)교장선생님, 김능배(전주공고)교장선생님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며

멀리 무주, 순창 도내 각 지역에서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들이 참석하여 농촌교육에 대한 높은 열기를 보여주었다.

이어 2부에서는 모범적인 농촌지역교육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익산농촌교육연구회 이종원 사무국장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또한 네트워크는 5.7 전북농촌교육활성화정책을 교육감후보자들에게 제시하고 공약화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창립선언문

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유구한 농경문화 역사와 지역 공동체의식이라는 훌륭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전북의 농촌지역에서 학교는 교육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구심점이자 공동체였다.

때문에 우리는 정부가 지난 1999년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발표했을 때, 농촌교육의 황폐화는 농도 전북의 황폐화로 직결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농촌학교살리기운동을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줄기차게 전개해왔다. 또한 몇몇 지역과 학교에서는 농촌 작은 학교에 알맞은 교육과정 연구와 실천,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과 연계한 교육공동체 건설 활동 등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이러한 모범적 사례들은 농촌지역교육 발전을 바라는 학교와 지역의 교육운동방향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문화의 세기, 정보화시대, 지식기반사회에서 농촌지역은 감수성과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살아있는 교육적 공간이며, 작은 학교는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미래의 훌륭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농촌교육정책은 기숙형공립고, 전원학교 지정 등 소수의 농촌학교에 도시 중심의 교육과정을 이식시키며,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거점학교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다. 거점학교 중심 정책은 전형적인 성장거점개발방식으로, 집중 투자된 한 학교가 주변의 작은 학교들을 흡수하는 형태로 진전될 것으로 보여 우려하는 바 크다.

농촌지역교육은 자치단체, 지역주민, 학교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며 주체적으로 나서야 발전할 수 있다. 이제는 정부와 교육당국을 탓하기보다 지역의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하며 지역만의 살아있는 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에 우리 농촌지역교육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사회,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의 소통 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전북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를 창립한다.

「전북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는 지역사회, 학교, 단체 간의 정보교류, 모범사례 발굴, 정책연구·개발 등을 주목적으로 활동하여 농촌교육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우리는 「전북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를 창립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농촌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소통하며 제반 정보 교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농촌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전개한다.
1. 우리는 농촌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교육당국과 지역자치단체에 대안을 제시한다.

2010년 4월 16일

전북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



2010년 전반기 독서교실 성과분석 청소년 독서동아리 활동으로 전환 시도

2005년 토요일업일이 학교현장에서 시행되면서 청소년 놀토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주말독서교실이 어느덧 6년째를 맞고 있다. 초기에 마땅한 활동장소와 예산지원이 없어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매년 조금씩 발전을 거듭하며 지속되고 있다. 이제는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예산지원과 활동공간 제공으로 우리 지역 놀토 주말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으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생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자연스럽게 미래의 청소년 독서동아리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아직 자립적인 청소년 독서동아리 활동으로는 미흡하지만 언젠가는 책만세 선생님들의 도움없이 기획부터 활동까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

2010년 전반기 활동은 학부모와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총 네 차례 진행되었다. 3월 27일(토) 학부모 10여 명과 책만세 지도교사, 학생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0년 청소년 주말 독서교실 안내와 활동방향 소개가 이루어졌고, 4월 10일(토)에는 삼례중학교 신은철 선생님의 안내로 '청소년을 위한 길가메쉬 서사시'를 읽고, 신화의 세계를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5월 8일(토)에는 동향중학교 박현숙 선생님과 함께 '기억전달자'를 읽고, 올바른 미래 사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6월 12일(토)에는 6·15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며 전주역사박물관에서 '똥강이'를 읽고, 양지중학교 황희경 선생님 진행으로 미니체육대회를 열고 책과 운동이 어우러진 재미있는 독서활동을 전개하였다.

2010년 계획했던 전반기 독서교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방학기간 지도교사 연수와 하반기 활동계획 보완을 통해 2010년 하반기 청소년독서교실의 비상을 꿈꾼다.



어린이체험교실 운영



우리 문화원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교실을 펼치고 있다. 출범 이후 5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교육의 대표적인 체험교실 운영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있으며, 독서교실과는 이제 폭넓은 확산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자타가 공인할 만하다. 독서교실과는 별개로 다양한 체험교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도 전통문화체험, 각종만들기 체험등이 회원님들의 열정과 헌신 속에 펼쳐지고 있다. 아래에 전주중앙초등학교의 체험보고서를 간추려 실어본다.

천연아로마 비누 만들기 체험

전주중앙초 3학년

말썽꾸러기 기질이 다분한 우리 반 아이들에게 활동적인 체험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고 싶었지만 다함께 할 수 있는 체험거리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변 학부모님들께도 연락을 해서 한옥마을 주변에서 아이들이 안 해본 체험거리를 찾아본 결과 아로마 비누 만들기 체험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6월 19일 오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약속한 6월 24일 목요일 비누 만들기 기구와 준비물이 도착하자 아이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뜨거운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일이나 담임인 나와 2반 선생님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체험활동을 가정으로 안내했더니 어머니 두 분이 오셔서 도와주셨다. 비누 재료를 스테인레스 그릇에 놓고 녹일 때 아이들의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니 평상시의 장난끼 많은 우리 반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 제각기 3개씩이나 비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에 정성들여 짓고 또 저었다. 예쁜 천연 코코아, 살구, 꿀껌질 가루를 섞을 때 나오는 예쁜 색깔에 다들 놀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예쁜 모양에 찍혀 나오는 비누를 보더니 여기저기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비누를 친구들과 교환하는 모습은 또 다른 느낌을 주었다. 서로 친한 친구들과 또는 색다른 모양을 갖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기꺼이 선물로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옆 반 선생님도 아이들이 직접 만든 비누로 손을 씻어 보더니 신기하고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하셨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여는 통일강좌 - 6.15 10주년과 냉전의 추억 -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문화원에서는 공부하는 교사가 되고 생각하는 시민이 되고자 지난 6월 17일 통일강좌를 열었다. 우리 문화원 교육실에서 열린 이 행사는 우리 문화원의 <통일사랑방모임>에서 발의되어 모임의 학습서인 『냉전의 추억』 저자를 모시고 함께 생각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마침 아르헨티나와 월드컵 축구경기가 예정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알차고 진지한 행사였다.

강사는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이자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이며 『냉전의 추억』 저자인 김연철님을 모셨다. 김연철 교수는 관계와 재계 그리고 학계에서 두루 활동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에서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대북 사업을 경험했고,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정책을 비교하는 연구를 했으며,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시절에는 북핵 문제와 남북회담을 다뤘다.

다양하고 많은 경험 때문인지 강연보다는 차분한 강의에 가까운 자리였다. 큰 담론을 형성하지도 않았고 이념을 논하지도 않았다. 다만 뛰어난 실무진의 정확하고 생생한 보고를 듣는 느낌이었다. 모두들 그렇게 많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강사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냈다.

최근 정세와 관련하여 상호 비방과 중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가의 문제, 과거 실무자였을 당시의 DMZ 선전물 철거와 관련된 이야기, 서해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관련된 문제, 북한산바지락 수입 문제, 나선특별시와 중국과의 관계, 분단국가에서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 등 여러 가지 특별한 주제를 말하고 함께 고민하였다. 특히 남북문제는 지금이 바닥이며 더 나빠질 수 없으니 희망을 갖자는 말씀에 모두 공감하기도 하였다.

강의에 열중하였던 통일실장 김현봉 선생님은 “저서 『냉전의 추억』에서도 제시된 정확한 통계와 문제의 중심을 보는 통찰력 있는 강의였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현시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지적인 강의였다. 아울러 남북 문제를 실용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게 된 중요한 강연이었다.” 라고 평하였다.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제 2회 이사장배 배드민턴 대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체육한마당 열려



지난 5월 15일, 제 2회 이사장배 배드민턴 대회가 전주서문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문화원 회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회원과 회원들의 지인 100여명이 참여해 배드민턴과 배구를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연대사업국장 임동연 회원은

“이 대회는 다른 배드민턴 대회와 달리 승자를

가리기 위한 대회가 아니라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운동을 통해 모르던 회원을 알아가고 지인들에게는 문화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고 말했다.

대회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중	급(남자복식)	1위: 고재근/김형배, 2위: 노장환/송 규
■ 초	급(혼합복식)	1위: 김재길/주인옥, 2위: 신성하/손영애
■ 완전초급	(혼합복식)	1위: 윤하용/진현희, 2위: 이준식/이형미

물빛 시원한 통영으로 떠난 가족 나들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초등교사 가족 40명은 통영으로 가족 나들이를 다녀왔다.

통영에 도착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미륵산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에 올라 산 정상에서 바라본 통영항과 한산섬 앞바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섬들, 섬과 섬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배들을 바라보며 이 아름다운 바다를 옆에 두고 사는 통영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다만 구름 안개가 끼었다 걷혔다 하며 농락하는 바람에 깨끗한 바다를 멀리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맛갈스런 꽃게탕으로 점심을 먹은 뒤 통영 여객항에서 한산섬을 다녀오는 배를 탔다. 날은 뜨거웠으나 한산섬의 시원한 나무와 깨끗한 물빛 덕에 더운 줄 모르고 다녀왔다.

갈매기들에게 새우깡 던져주는 재미에 갈매기들 만큼이나 깔깔 깔깔거렸던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렸다.



기획/특집

교육감에게 바란다
(교육정책제언)

김승환 교육감에게 바란다. 새로운 교육비전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최선희(봉서중, 본원정책기획실장)

6월 2일 치러진 전북 교육감 선거는 전국 어떤 선거보다도 치열한 접전 속에서 0.3%의 근소한 차이로 진보교육감인 김승환 후보가 당선되었다.

김승환 교육감은 다른 후보에 비해 조직력, 홍보력, 인지도에서 절대적 열세였으며 교육계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뚫고 김승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김승환 교육감 당선 이유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교사,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선거 참여였다. 필자가 주변에서 경험한 바로는 어떤 단체에 속하지 않는 시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김승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면 교사, 학부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1)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

한국사회 최대 교육 문제는 입시교육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전북도교육청의 각종 정책들은 입시교육을 해결하는 방향이 아닌, 보충수업 강화, 문제풀이식 교육 강화로 이어져, 고등학교는 물론 초·중학교까지 입시교육이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 시민들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을 교육관료 출신에게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인 김승환 후보를 적극 지지했다.

2)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심판

이번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강했다. 교육부분에서는 일제고사, 성적공개, 교원평가 등 입시 경쟁교육으로 치닫는 이명박식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였다.

또한 전혀 의견수렴이나 논의 과정도 없이 상명하달식으로 내리먹이는 정책들, 그 속에서 전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심판이었다.

3) 기존 교육관료에 대한 심판

그동안 간선제(학교운영위원을 통한 선거)에서는 일반 교사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관료들보다 교사들의 역동적인 참여의 힘을 보여주었다. 이는 교육감 직선제의 힘이라 할 수 있다.

교사들은 최규호 교육감의 인사 정책 등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다. 그래서 교육비리, 인사비리를 없애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매우 높았다. 김승환 교육감에게 인사비리, 교육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에게 바란다.

이처럼 이번 교육감 선거는 기존의 입시경쟁교육,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교육관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매우 강한 선거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에게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입시교육, 교육비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김승환 교육감은 기존 입시경쟁교육과는 다른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모델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교육의 희망을 주어야 한다. 또한 20세기식의 인재양성 방안이 아닌, 학생들이 살아갈 21세기에 맞는 미래형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교육복지 정책 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인사비리, 줄세우기 관행 등을 없애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는 노력이 선차적으로 필요하다.

2)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투쟁보다 합리적 대안 제시해야

시민, 교사들은 반이명박 정서가 강하지만,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에 맞서 무조건적으로 투쟁하는 모습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교사, 학부모와 함께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소통적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이유는 4대강, 언론악법 등의 내용적 요소와 함께, 정책 추진 방식 즉 소통 방식의 문제에 대한 비판도 매우 크다.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청을 운영하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사, 학부모, 시민들, 그리고 여러 시민 사회 단체들과의 소통 속에서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등 교육 현장을 찾아가면서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호흡하는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3) 조금중에 빠지지 말아야

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육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교육만으로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정책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교육은 사회 구조, 입시교육의 구조 속에 있기에 교육 정책을 세밀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왜곡되어 버린다.

그래서 좀 더 긴 안목으로,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교육행정 조직 운영 시스템, 인사시스템, 교육개혁추진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사나 학부모들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김승환 교육감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교육복지 정책 등이 성공을 거두어, 가르침의 기쁨과 배움의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이 길에 문화원도 함께 노력할 것이다.

희망 2010

제10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전라북도교육청과 국립전주박물관, 전북겨레하나가 공동으로 후원하고 본원이 주관한 '희망 2010 제10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행사가 6월 12일(토) 오전 09:00~12:30분까지 국립전주박물관 일원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2000년 남북 정상(남측 김대중대통령,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10년째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10회째이기에 성대한 행사를 기획하였으나 지난 3월 26일 서해에서 우리의 함대 천안함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외부폭발에 의하여 침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었고, '통일'이라는 낱말 자체도 언급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행사를 준비하는 진행팀은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비까지 오락가락하는 날씨였지만, 1,000여명의 가까운 초·중·고 학생과 지도교사, 학부모, 일반인들이 참가하였고, 특히 가족 전체가 나들이 한 듯한 참가자들은 행사장 이곳저곳에 전시되어 있는 전년도 수상작, 행사 종합, 북한 우표 프랑과 한반도가 필릭이는 식전 열린 마당 행사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였다. 그리고 통일 시대를 주도할 우리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벼운 마음으로 알아보기 위해 기획된 5행시(주제: 통일한마당) 짓기는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행사는 예정대로 1부 기념식을 시작으로 2부 초등 글쓰기와 그리기, 중등 글쓰기와 노래가사바꿔부르기(이하 노가바) 대회가 실시되었고,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것, 백두산으로 수학여행 갔어요」



초등그리기부문 전주교대총장상수작작품

를 주제로 한 초등 그리기 부분에서는 전주효림초등학교 5학년 김두리 학생이 1등상인 전주교육대학교총장상을 받았으며, 「내가 알고 싶은 북한 이야기, 오늘 밤 꿈에 북한 아이들을 만난다면,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한 초등 글쓰기부문에서는 전주서원초등학교 3학년 문석환 학생이 1등상을 받았다.

그리고 중등은 「성장, 화해, 기억, 자유시간」을 주제로 한 글쓰기 운문부문에서는 이일여자고등학교 3학년 도향원 학생이 영애의 1등상을 받았고, 산문부문에서는 전주완산고등학교 2학년 박수홍 학생이 영애의 1등상을 받았다. 또한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노가바 대회에서는 순창제일고등학교 2학년 송슬기 학생 외 24명이 「남북은 영원히 하나」라는 제목의 노래로 대상인 전주교육대학교총장상을 수상하였고, 전라북도 도지사상에는 「우리 통일이 됐어요」라는 제목의 노래로 이리남중학교 3학년 신명준 학생 외 5명이 수상하였다.



중등 통일 노래 가사 바뀌부르기 대회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 대회는 9시 30분부터 전북 청소년교육문화원(이하 문화원) 통일교육실장 김현봉 선생님(전주평화중학교)의 사회로 1부 기념식이 열렸고, 문화원 이미영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문화원이 이렇게 10년째 ‘전북 청소년통일한마당’ 행사를 열고 있는 이유를 ‘최근 우리의 통일 염원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와 주변 정세는 화해·평화·통일 분위기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미래의 통일 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남북은 화해하며 평화통일을 향해 나가야 하고, 또한 온 겨레의 숭고한 뜻인 평화통일 정신을 청소년들에게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행사다.’고 밝혀 참가자 모두의 환찬 박수를 받았다.

한편 본 행사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고 후원한 전라북도교육청 강일형 장학관님과 반정수 장학사님의 방문 격려는 진행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전라북도교육청의 지원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통일 염원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큰 기쁨을 함께하는 한마당이 되었다.’며 최순삼 문화원장은 기쁨 마음으로 행사장 이곳저곳을 함께 하였다.

2부는 전라북도 통일운동의 선봉장 장재성 선생님(이리남중학교)의 사회로 경연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순서로 전년도 대상을 수상하였던 고창해리중학교 팀이 ‘통일은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러 장내 분위기를

기를 끌어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본선에 오른 9팀이 경연을 벌였다.

9팀의 경연이 끝나고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함께한 전주공고 비보이팀의 공연은 장내 분위기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이 대회에 처음 참가했다는 한 여학생은 ‘통일 행사라 하여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즐겁고 흥겨울 줄은 몰랐다.’며 싱글벙글 한다.

대회 결과는 영예의 대상인 평화통일상(전주교육대학교총장상)에 순창제일고등학교 2학년 송슬기 학생 외 24명이 수상하였고, 전라북도지사상에는 이리남중학교 3학년 신명준 학생 외 5명이 수상하였다. 이외 민족통일상(전라북도교육감상)에 성심여자고등학교 팀이, 민족평화상(전북교육위의장상)에 전주평화중학교 팀이, 민족화해상(전주시장상)에 전주공업고등학교 팀이, 민족협력상(전주교육장상)에 진안중학교 팀이 수상하여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한편 우리 문화원이 진행하고 있는 ‘북녘 콩우유 보내기’ 운동본부에서 통일한마당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3명의 손님이 새벽같이 차를 타고 이곳 전주까지 방문하였다. 이들은 학생들이 대중성이 있는 원곡에 통일지향적인 노랫말로 바꿔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였으며, 특히 ‘젊음의 기상’이 넘치는 듯 하여 매우 밝고 의미 있는 자리였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행사라서 더욱 기쁘다.’고 말하며 격려해주기도 했다.

통일글쓰기산문부문
전주교대총장상

기억속의 남북한과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

전주완산고등학교 1학년 박수홍

우리는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산다. 좋은 기억들과 나쁜 기억들이 모여 경험을 만들 듯이 남과 북 역시 그러한 기억들 속에서 서로 가까워지고, 소원해졌다.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체결 될 당시 두 정상의 맞잡은 두손은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주었고, 2004년 시드니올림픽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한 동시입장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반면, 천안함 사태는 온 국민을 분노에 차게 했고, 통일에 대한 한줄기 희망을 끊어 놓을 만큼 나쁜 기억으로 남았다.

지난 60년간의 시간은 남과 북을 끊어 놓기에 충분했다. 시간은 한 뿌리에서 출발했던 민족을 서로 다른 가지에서 열매와 꽃을 맺게 하였다. 그 결과 언어는 표준어와 문화어로 친구와 동무로 나뉘어 이해가 할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으로 인식하기는 커녕 거리를 두어 15년간 이뤄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있다.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고립된 북한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소통을 하는 것이야말로 단절된 관계를 연결하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베픔은 관계를 증진하는데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계속된 독재와 군권 중심화된 북한의 상황은 그들의 인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이끌고 북한에 들어간 이후, 북한의 사정을 알게 된 세계는 구호물품을 보내왔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는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렸고 결국 북한 주민들은 아사해 차마 눈뜨고 볼수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富)를 자기를 위해 쓰는 자는 곧 부를 잃어버린다. 베픔으로써 북을 도와준다면, 우리와 그들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져서, 결국 통일까지 이룰 수 있을것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의 자세와 태도 역시 중요하다. 4년마다 세계청소년연맹에서는 ‘잼버리’라는 것을 연다. 이 축제의 목적은 세계청소년들의 우호와 문화이해, 인정하는 데에 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들부터 서로 친해진다면 통일이 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서신교환에서부터 남북한 하나로 구성된 팀으로 국제경기에 출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인생사지 새옹지마라는 말이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일도 있고, 반대로 나쁜일이 있으면 좋은일이 생긴다는 말이다. 금강산 관광이 단절되고 천안함 사태 또 개성공단의 축소는 분명 나쁜기억이었고 또 안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월드컵 남북한의 동반진출 그리고 북한의 권력교체 등 북한과 우리가 좋아질 계기는 항상 있다. 부디 소통과 대화로, 그동안 묵은 감정들을 툭툭 털어버리고 통일이 되어 하나의 단일 국가로 북한 인민, 남한 국민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가슴에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통일글쓰기운문부문
전주교대총장상

나비의 기억

이일여자고등학교 3학년 도향원

아홉 살, 내 기억 어딘가
하얀 나비 물결을 타고
한반도를 여행했었다.

수만의 날개짓에
봄날 모래바람이 씻겨나가고
파란 물살을 가르고
호랑이 한 마리가 허리를 펴고 날아올랐다.

나는 그 호랑나비 날개의
하나의 점이되어
추운 북녘, 어디로든 날아가
꽃을 피웠다.

노을 진 들녘에서
철조망에 날개가 베어나가기 전까지
나는 한 마리 나비.

만개하지 못한 꽃과 하염없이
낙화하고 있었다.

십년이 흐르고
하늘을 담아도 구름 한 점 없는 내 눈동자에
어디선지 나비가 파닥이는 것은
그 하얀 날개에 눈동자를 찌고
다시 날아오르고 싶은 걸까?

초등통일글쓰기부문
전주교대총장상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

전주서원초등학교 3학년 문석환

대통령 할아버지
자전거에 매달려
바람 맞으면
얼마나 상쾌할까

대통령 할아버지
손을 잡고
논두렁을 걸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대통령 할아버지
허리춤 꼭 잡고
풀썰매 타면
얼마나 즐거울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

통일한마당 오행시

전주조춘초 3학년 김근선

통_ 일아
일_ 짝오렴
한_ 밤자면 오니? 두밤자면 오니?
마_ 음은
당_ 장이라도 백두산에 가고 싶다.

전주서문초 6학년 이효선

통_ 일은 우리의 소원
일_ 본도 미국도 러시아도 이해 못하는
한_ 국민만이 간절히 바라는 통일
마_ 법이 있다면 요술이 있다면 이루고 싶어요
당_ 연히 갈수 있어야 했던 곳으로 모두다 갈수 있도록

전주완산초 3학년 김유진

통_ 일이 된 아침
일_ 요일이다
한_ 지에 통일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마_ 법처럼 통일이 된것같아
당_ 당히 나가서 말 걸어봐야지

전주만수초 4학년 조아름

통_ 일이 된다면
일_ 본을
한_ 방에
마_ 법을 부려
당_ 나귀로 만들어 일을 사키겠다

전주효문초 4학년 신여지

통_ 일한마당에 오기위해
일_ 짝부터 일어나
한_ 마음 한뜻으로
마_ 음을 모아
당_ 장 글짓기를 해야겠다. 통일을 위해

전주화산초 2학년 권주현

통_ 일을 꿈꾸는 어린이 권주현입니다.
일_ 단은 우리나라와 북한이 서로 약속을 잘 지키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한_ 반도의 위기를 남북이 힘을 합하여
마_ 침내 통일을 이루어서
당_ 당하게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면 좋겠
습니다. ★꿈은★이루어진다

해화유치원 지혜반 유호준

통_ 일을 향해 열심히달리고
일_ 요일에 신나게 놀고 수박도먹으면
한_ 마음이되고
마_ 음도 깨끗해져요
당_ 장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전주서문초 6학년 국은서

통_ 일은 언제 올까?
일_ 년이고 몇년이고
한_ 민족 될 수 있는 희망
마_ 음속에 깊이 간직한 사람들
당_ 당하게 내세워라. 당신의 그마음을

기획/특집3

여름독서캠프
돌아보기

2010 여름 어린이독서캠프 예술의 향기에 취하다



만나서반가와요



우리선생님들



소개책을 읽는 손 예쁜손



작가선생님 사인해주세요!!



아침 축구한판으로 시작!



책읽는 예쁜 눈



알쭉공연도 하고



여기는 책거리장터입니다



예술속으로



도저언~ 골든벨!



손에손을 잡고.



다음에 또 만나요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산하 초등독서모임 '읽고살고'는 최근 무주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조선이 낳은 그림천재들'의 작가 조정육 선생님과 '소리공책의 비밀'의 작가 윤미숙 선생님을 초청해 예술과 작가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캠프를 열었다.

올해 10회째 맞이하는 독서캠프는, '모여라 유랑극단' (김중미), '천재화가 이중섭과 아이들' (강윤희)의 도서를 추가 선정하여 책과 예술"이란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도내 80명의 학생(4~6학년 대상)이 참여한 이번 캠프에서는 8개의 모듈별로 작품을 읽고 이를 내면화하기 위한 다양한 독후활동과 독서골든벨 등의 행사를 가졌다. 책과 예술과 아이들을 엮어내기 위하여 모듈교사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영화감상,물놀이, 숲체험,조기축구,모닥불놀이)과 독서내면화 활동(전시와 인형극 및 사물놀이)을 준비하여 알차게 진행했다. 아울러 초청가수 김승재(이중초)선생님으로부터 꿈을 가지기 노력해야 할 점을 같이 공부하기도 했다.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 올해 합류한 소미영선생님(익산초)은 "아이들이 책을 편안히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져서 그런지 힘들지 않고 행복했다"라고 말했으며 여울초 임은강학생은 "작가선생님도 가수선생님도 직접만나서 이야기하고같은 모듈 언니들과너무친하게 지내서다음에도꼭오고싶다"고 말했다.



2010 여름 청소년 독서캠프

2010 여름 청소년 독서캠프가 8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학생 82명, 도우미 11명, 교사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학생교육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독서캠프는 캠프의 졸업생들이 다시 캠프의 도우미로 돌아오는 새로운 역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었다. 작년보다 많은 도우미들이 참가하여 모둠별로 도우미를 배치하여 캠프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제는 대학생이 된 송겨레(부산고대)를 비롯하여 대학생 도우미 3명과 조용화(전고2년)를 비롯한 고등학생 도우미 7명이 모듬의 도우미 선생님으로서 자마다의 몫을 톡톡히 해내는 모습을 보며 캠프의 미래를 보는 듯 했다. 중학교3년동안 독서캠프에 참여한 캠프 졸업생들이 9명이나 되었다. 이 학생들의 미래도 독서캠프가 함께 할 거라는 기대를 가져 보기도 한다.

독서캠프 참여 교사들은 지난 3개월의 토의와 토론 과정을 통해 동·서양의 고전과 미술책을 선정하고 '지리산 품에 안겨 고전에게 나를 묻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나'를 발견해 내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였다. 모듬은 UCC, 독서신문, 만화, 연극 모듬 6개를 편성하여 다양한 표현 방식을 유도하였으며, 저자와 연극인, 숲해설사, 문화 해설사 등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의 내실있는 내용을 만들는데 도움을 주었다. 연극전문 강사 3명은 연극 모듬과 UCC모듬에 투입되어 학생들의 시나리오와 연기 지도를 해주었

고, 숲해설가와 문화해설가를 초청하여 세길산의 나무와 꽃에 대한 설명과 전통놀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대미를 맞고 진행한 숲해설은 비가 주는 또 다른 운치를 주기도 하였으며 한자성어와 시조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된 전통놀이는 학생들에게 학습과 전통이 잘 어우러져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었다.

저자 조정육씨는 한·중·일의 동양화와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예로 들어가면서 동양화의 특징과 그림이 전하는 의미를 1시간 30분동안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동양화의 세계를 접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책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도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시각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 '천국의 속삭임'은 희망의 눈을 가리고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꿈을 꾸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었다.

토론대회는 모듬별 예선을 개인별로 진행하여 그 중 우수학생 2명이 본선에 한 팀으로 출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선 진출자들은 새벽까지 토론 준비를 하는 진풍경도 연출되어 토론의 열기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캠프의 유익성과 흥미가 공존해야 한다는 생각에 모듬별로 진행하는 게임과 비보이 공연, 장기자랑을 진행하였다. 모듬별 게임은 스피드퀴즈, 이구동성, 제기차기, 정지동작으로 표현하기, 종이컵 쌓기, 한국화 퍼즐맞추기가 진행되었다. 책의 내용을 정지동작으로 표현하는 활동은 학생들의 재기발랄함이 잘 드러나는 게임이었다. 장기자랑은 도우미(고등학생)의 사회로 학생들의 숨겨진 끼와 예능 실력을 볼 수 있는 기회로 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내었다.

독서캠프는 학생들의 독서교육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모여 만들어낸 독서지도의 총화라고 할 수 있다. 단위 학교에서 진행되는 독후활동과 청소년독서교실을 통해 캠프의 내용과 형식을 채우고, 캠프의 활동이 다시 단위학교의 독서지도에 활용되는 순환 구조가 되고 있다. 이런 순환 구조를 통해 지도교사의 역량이 한껏 향상되는 계기가 됨은 분명하다. 그러나 교사의 열정만으로는 교사 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다행히 독서캠프의 졸업생들이 도우미교사로서 캠프에 환원하여 보안하고 있으나 생활지도나 토론 주제 마련과 대회 진행 등 교사만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으므로 지도 교사의 부족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독서캠프가 지역사회의 진정한 문화 축제의 한마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력 인프라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양한 교과와 교사, 교육단체, 지역시민단체가 캠프의 준비과정에 서부터 참여하여 제 목소리를 내고 그에 맞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 그래도 절대 안 돼!

부원장 정우식

자율형 사립고가 아니라, 획일화된 입시 패권고 부활이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온통 낄림에다 졸속투성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추진 과정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럴듯한 이름으로 ‘자율형’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리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어디로 흘러갈 정책인 줄 뻔히 예견할 수 있다. 바로 입시경쟁교육으로 획일화할 뿐인 ‘입시명문고 부활’이요, ‘고교 서열화’이다.

자사고가 가져 올 폐해로 지적되어 온 것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저해

그 이유가 성적이든, 부모의 경제력이든 간에 자사고에 진학하지 못한 중하위권 학생들은 고교생활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미 열패감을 안고 출발하기 때문에 무력감, 의욕상실, 학교 이탈 등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부작용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 더 많은 학생들이 내 지역학교가 아닌 타 지역학교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심각하다.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자사고에 진학한 성적 우수 학생들도 동질 집단 내 경쟁 과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훨씬 가중될 수밖에 없다. 우수 집단에서도 꼴등은 생기게 마련이다. 자사고 도입은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크게 저해하게 된다.

학연 강화-지역 패권 장악-지역 갈등 대물림으로 이어져

고등학교를 서열화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이고, 특정 집단에 들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가진 수많은 아이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학연이 강화되고, 출신학교 별로 학생 간, 학교 간 반목이 생겨나서 지역사회의 통합은 어려워지고 지역 내 갈등은 대물림 양상을 띠며 심화되어 갈 것이다. 불과 10여 년 전, 익산·군산이 비평준화지역일 때 늘 볼 수 있던 풍경이다. “○○학교 출신이 아니면 구멍가게 하나 해 먹을 수 없다.”는 말이 난무할 정도로 지역 갈등은 심각했다. 학교끼리 까닭 없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성적하위권 학교 학생들은 교복 입고 다니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겨야 했다. 끔찍했던 그 시절로 회귀할 순 없다. 자사고는 일부 사립학교의 지역 패권 욕망을 담은 학교 이기주의의 산물일 뿐이다. 한 학교가 지역의 모든 패권을 장악함으로써 나타난 해악들을 고스란히 되살리고 말 것이다.

양극화심화-계층 간 위화감 증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고등학교부터 진입장벽을 두게 됨에 따라 나타나게 될 계층 간 위화감과 갈등의 증폭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사회적 배려자를 일정 비율로 선발하면 보완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는 허울만 그럴듯한 구두선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크다. 등록금 외에 들어가는 추가비용도 문제이지만 씹씹이부터 사교육 부담에 이르기까지 일상을 지배할 문화적 괴리를 사회적 배려 전형 입학생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고교입시 경쟁 과열 - 입시지옥, 사교육비 증가

우리 사회문제의 근원이라 할 정도로 개선이 시급한 대학입시 경쟁 구조로도 모자라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들까지 극심한 고교입시 선발 경쟁으로 내몰게 되므로 아이들은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더 심한 사교육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또한 몇 배나 늘어나게 된다. 그러고도 지역 교육의 경쟁력마저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투자 원리에도 분산 투자라는 게 있다.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격언이 그것이다. 한 학

교에 성적우수생을 모아놓는 것은 다변화된 사회에 적응하는 측면에서나, 다양한 입시전형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방식이다.

고교 평준화기조 무너져-고교입시 부활, 고교 서열화

자사고는 결국 고교평준화 해체, 고교입시 부활, 고교등급제 합법화 등의 결과로 이어져 교육 양극화를 심화하고 계층 세습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익산·군산은 인문계 남자고교가 남녀공학을 포함해도 3~4개씩밖에 없어 평준화의 틀이 완전히 깨지게 된다. 학교 수가 월등히 많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도 자사고는 평준화 해체로 이어지며 수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평준화가 깨진 상황은 떠올리기조차 두렵다. 익산·군산은 10여 년 전 비평준화 시절, 부작용과 병폐가 극심해지자 교육주체들이 지난한 운동의 과정을 거쳐 어렵게 고교평준화를 이루어놓은 지역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을 개정한 끝에 평준화지역으로 고시되었다. 그때 나는 평준화대책위 사무국장을 맡아 익산 고교평준화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절실한 요구를 담고 있으며, 그 성과가 어찌서 이름답고 숭고하기까지 한 것인지를 잘 안다. 자사고 설립은 소중한 지역교육운동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짓밟는 무자비한 폭거이다.

평준화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자사고와 같은 졸속적 교육정책 추진보다는, 교육투자와 교육 프로그램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사고는 앞서 지적했듯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경쟁 일반도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경쟁마저도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경쟁이 아니라, 성적우수자를 씹쓸이 유치하기 위한 선발 경쟁에 불과한 것이어서 더욱 우려하는 것이다.

전임 교육감, 전북교육에 커다란 부담만 남기고 불명에 퇴진

퇴임한 최규호 교육감은 압도적인 여론과 시민사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지정을 강행했다. 자신의 공언을 뒤집으며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신의마저 저버렸다. 선거 민심을 배반하고 지역교육의 현실과 아이들의 삶을 짓밟았다. 남득하기 어렵게 불명에 퇴진을 자처했다. 국가기관은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지역교육에 심대하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법으로 보장된 고교평준화마저 무너뜨릴 정도의 막중한 사안을 단 하나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지역 현실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이 졸속 처리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잘못된 처사이다.

남성고, 지금이라도 욕망을 버리고 자진 철회해야 김승환 교육감께 격려의 박수를 -도민과의 선거 공약 꼭 지키시길

특히 익산 남성고는 학교의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갈등과 혼란을 제공해온 책임을 통렬히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자진 철회해야 한다.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스스로 옳바르지도 않은 교육문제를 법정 다름으로까지 끌고 가셔야 되겠는가? 한 학교의 보잘 것 없는 명성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 치려야 할 지역사회의 대가는 너무도 크다.

남성고는 고교평준화의 틀 안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투자를 늘리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방안을 먼저 강구하여 명문 고등학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전임 교육감의 어처구니없는 일 처리로 부담은 고스란히 김승환 교육감이 혼자서 짊어지게 되었다. 확고한 반대 의지로 직권 취소를 선언한 터이지만 법정 공방에 휩싸이는 등 전임자의 행정 행위를 뒤집는 부담도 만만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문제는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개혁이나 혁신학교 공약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도민과의 선거 공약을 지키는 일이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당하게 졸속 처리된 자사고 지정을 무효화, 무력화해야 한다.

1년 넘게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왔지만 날벼락 같은 지정 고시 한방으로 허탈한 낭패감과 배반감에 젖어 있을 익산·군산의 교육주체들과 시민사회와 양식 있는 도민들이 기댈 곳은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김승환 교육감밖에 없다.

이 점 교육감께서 잘 헤아리시고 함내시기 바란다.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이 글은 「열린 전북」에 기고한 글을 추리고 다듬은 것입니다.



인디고서원 역음
공리

‘책과 책을 중횡무진 넘나들던 아이들,
책과 저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다’

최고의 경험이 희망의 싹을 틔운다

양희전(군산고)

방학이 다가오고 있음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것은 ‘마.음.’이다.
짧지 않은 경력과 더불어 강화된 몸쓸 ‘관성의 법칙’ 은 묘하게도 학교의 주기와 맞아떨어지곤 한다.

아이들이 미워지고, 동료교사의 단점이 가시처럼 신경을 건드리고, 급기야 가정에서 가장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들의 수난시대가 열리는 즈음이면 벽에 걸린 달력의 숫자는 틀림없이 7월 아니면 1 2 월이니 말이다.

짐작하다시피 학교의 일상이란 것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변화무쌍하거나 일분일초를 다투어야 하는 급한 패턴을 지닌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육은 만남과 소통 즉,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 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어쩌면 학교에서의 회로애락은 상황과 물리적 조건의 변화보다는 ‘관계의 변화’ 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아닐 것이다.

몇 번의 학교주기를 반복해 살아내며 관계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마음이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 이란 것이 내키면 똑딱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여유’ 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어렵듯이 알아채고 있는 중이다.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을 때마다 시선을 안으로 돌려 자신을 버리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현실에서 벗어나 내가 바라보는 온전한 교사의 모습, 이상적인 학교교육의 모습을 그리거나 그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른 마음의 용량을 키우는데 유익한 방법이라는 것을 십육년지기 교사로서 터득한 유의미한 일탈(?)가운데 하나다.

이번 방학을 앞두고 만난 사람들은 ‘주제와 변주’ 라는 책을 통해 만난 인디고서원의 허아람 선생님과 아이들이다.

인디고서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청소년 대상의 인문학서점이다.

물론, ‘청소년 인문학서점’ 이라는 타이틀 자체도 의미 있지만, 인디고 서원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까닭은 그 곳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선정하고 일상적으로 토론과 강연 등을 주최하는 공간이라는데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인디고 서원은 인문학도서를 판매하는 서점으로서만 기능하는 곳이 아닌 청소년들이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삶에 대해 사유하며 주체적으로 공부하고 그를 통해 소통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청소년들의 자발적 학문공동체’ 이다.

「주제와 변주」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 이상 책을 가까이 한 인디고서원의 아이들이 마련한 독서토론회를 책으로 옮긴 것이다.

책에 나와 있는 ‘책과 책을 중횡무진 넘나들던 아이들, 책과 저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다’ 라는 출판사의 서평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주제와 변주」는 첫 만남의 주인공 이왕주 쌤의 바램처럼 ‘책’ 을 작품으로서만이 아닌 ‘텍스트’ 로서 받아들이어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사유한 아이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직접 저자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을 초대하며 마련한 토론의 장이다.

독자입장에서 이 책을 통해 이왕주, 한홍구, 진중권, 박정대, 김용석 등의 이 시대 대표적인 지식인들을 만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지만 그보다는 인디고 아이들이 뽑아낸 ‘철이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지금, 여기 당신은 누구입니까?’, ‘획일화된 시대에 다양성, 다름의 수용은 왜 중요합니까?’ 등의 주제들은 물론 때론 저자들마저 당혹스럽게 만들곤 하였던 예리하면서도 정제된 언어로 표출되는 질문들은 그 들이 지닌 사유의 폭을 엿볼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진정한 공부의 힘을 느끼게 하여 다시 교사로서 나를 성찰하도록 하는 유의미한 경험이었다.

독서, 논술, 토론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청소년들의 온전한 성장이 아닌 대학입학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에 의해 가치가 매겨지고, 그 것도 모자라 공부의 비법, 공부의 신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져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왜 공부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등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하려는 교사나 학생보다는 시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세련되게 가르치는 교사와 시험 성적이 좋은 학생이 능력 있는 존재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공부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사람의 몸과 생각을 키우고 마음을 성장시키는 것이라 한다면 재미없는 공부, 몸을 망치는 공부, 공동체적 관계를 깨며 급기야 인간의 꿈과 목숨마저 앗아가는 공부를 강요하는 경쟁적이고 억압적인 우리네 교육시스템이 공부로부터 얼마나 멀리 비켜 서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인디고 서원 아이들의 존재가 단비처럼 반가운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은 부산이라는 반도 끝자락에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한 발걸음으로 자신들의 무모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지만 묵묵한 그들의 행보가 언젠가는 학습지로 오염된 대한민국의 서점뿐 아니라 ‘학력신장’ 이라는 제로섬 게임에 종속된 대한민국 학교들과 교육을 정화시키고 산바람 나는 공부재미에 빠뜨릴테니까 말이다.

그러니 인디고 친구들이여 부디 늘, 건강하게 지내며 내년에는 더욱 번창하길...

“ ”

옛날 영화를 다시 보라!

데이비드 린 감독
『인도로 가는 길 A PASSAGE TO INDIA, 198』

삼례중학교 교사 신은철

선생님

후텁지근한 날들이 줄지어 안겨오는, 그래서 소낙비가 몹시도 그리워지는 유월 하순입니다.

곧 있을 기말고사가 끝나면 ‘아기 다리 고기 다리던~ㅋㅋ’ 여름 방학이네요. 입이 저절로 귀에 걸립니다. 참으로 쉽지 않았던 한 학기였지요? 그러나 방학이라고 알찬 계획을 세우기에는 보충수업이라는 징그러운 복병이 기다리고 있어서 아이들이나 우리나라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네요~ㅠㅠ

선생님

오늘 새벽에 저절로 잠이 깨서 버릇처럼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 , 대학교 때었던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 보았던 데이비드 린 감독의 ‘인도로 가는 길’ 을 다시 봤지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몸 떨림을 느꼈습니다.

‘아, 이미지와 상징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멋진 감독이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일며, 이 감독의 모든 영화를 다-아 봐야겠다(전작주의)는 도전의식이 불끈 생겼지요. 전작주의는 요즘 새로 생긴 행복한 게 불치의 병(?)이지요.

그리고 영화를 본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지요. 영화를 통해 나(참나, 대자아)와 이웃(우주, 자연, 궁극 실재)을 보고 그 둘이 하나(참나=궁극 실재, 범아일여)임을 알고, 영혼의 변화(깨달음, 인류의 영적 스승들이 가르쳐주시구원의 길)를 일으켜, 나와 이웃 속으로 되돌아간다(대화화소통, 사랑과 자비의 실천)는, 제가 입에 달고 다니는, 영화를 제대로 본다는 의미, 영화 치료의 신비 과정 바로, 성찰과 변화 그리고 소통 말입니다. 이런 과정이 이 영화를 보며 저에게 일어났고, 그래서 제 몸엔 전율이 일어났겠지요.

저는 최근에 신화와 종교를 공부하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요즘 캠벨 스승님의 신화 관련 책들, 엘리아네 스승님의 종교 책들, 오강남 스승님의 ‘예수는 없다’, ‘세계 종교 둘러보기’. 허진희님의 ‘인도 민화로 떠나는 신화여행’, 힌두교의 경전인 ‘우파니샤드’와 ‘바가바드 기타’, ‘간디 자서전’, 헤세의 ‘싯다르타’, 서머셋 모ムの ‘먼도날’, ‘달과 6펜스’ 등의 책을 다시 읽었거나 읽고 있지요.

이 책들을 읽으며 든 의문은 바로 “왜 인도인들은 그토록 영적인 사람들인가? 어쩌해서 그들은 그처럼 깊은 사색과 영적 성취를 이루어 인류에게 밝은 빛을 주나?”하는 궁금증이었지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며, 아니 이 영화의 이미지가 주는 상징(철산 히말라야, 강을 가로지르는 낮은 다리, 수많은 인도 민중들, 인도의 산하 등의 이미지)을 읽으며, 그 ‘왜’ 인가에 대한 답을 비록 빙산의 일각이었겠지만 느낄 수 있었지요.



그래서 제 몸이 제 무의식을 들썩이고, 영적으로 감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예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며 꿈을 하나 가졌습니다. 언젠가 몸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인도에 가야겠다는, 인도 여행의 꿈 말이에요. 인도의 땅, 산, 사람, 마을에 서서 인도의 힘을 저의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어요. “진정! ; 영화 너는 내 운명의 전도연 버전이에요~ㅎㅎ”

그것이 또 한 명의 제 스승, 데이비드 감독님께서 제게 던지는 영적인 메시지네요. 그 길(道)은 바로 인도로 가는 길, 결국 나에게로 가는 길, 또한 우리 집으로, 내 조국으로 가는 길이겠지요!

선생님, 그때 제 옆에서 제 손 꼭 잡아 주실 거죠?

2010년 유월의 어느 날

신은철 함장(含掌)

추신: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인 E. M. 포스터의 ‘인도로 가는 길(1924년)’은 아쉽게도 품절이네요.

〈이 영화의 줄거리 소개〉

인도의 봄베이에서 찬드라보아로 향하는 기차 안, 거기에는 인도에서 치안 판사로 있는 영국인 로니(Romy Heaslop: 니젤 하베스 분)를 만나기 위해 런던에서 건너온 그의 어머니 미세스 모어(Mrs. Moore: 페기 애쉬크로프트 분)와 로니의 약혼녀 아데라(Adela Quested: 주디 데이비스 분)가 타고 있었다.

역에서 로니의 마음을 받은 두 사람은 영국인 전용 관저에 집을 풀게 되고 판에 박은 듯한 인도 생활에 염증을 느낀 미세스 모어는 인도인 아지즈(Doctor Aziz: 빅터 바네예 분)를 사귀게 되고 아데라의 인도인에 대한 호의에 감사의 표시로 아지즈는 그녀를 유명한 유적 마라바 동굴 여행에 초청하게 되는데……

♣ 데이비드 린

(1908.3. 25~1991. 4. 16, 영국) 감독



런던 교외의 크로이던 출생. 1928년 영화계에 입문, 촬영·편집·연출 각 분야의 조수를 거쳐 극작가 노엘 워드와 함께 《우리가 봉사하는 것 In Which We Serve》(1942)을 공동 감독하여 영화감독으로 데뷔한 이래 영국 굴지의 감독으로 이름을 떨쳤다.

주요작품으로 《밀회 Brief Encounter》(1946)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1946) 《콰이강의 다리 The Bridge on the River Kwai》(1957) 《아라비아 로렌스 Lawrence of Arabia》(1962) 《닥터 지바고 Dr. Zhivago》(1965) 등이 있으며, 1984년 E.M.포스터의 소설을 영화화한 《인도로 가는 길 A Passage to India》를 마지막 작품으로 남기고 기사 작위를 받았다. [출처: 네이버 영화]

좋은 교사모임, 좋은 교육을 꿈꾸다.

이번 호에서는 전북좋은교사모임을 소개합니다. 종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실천적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강한 모임에 대해 이메일인터뷰를 통해 만나보았습니다. <편집자주>

■ 좋은 교사 모임은 어떤 계기로 시작된 모임인가요?

전주교대 학부 시절 기독교인들이 학교의 일들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기독교인들이 연합하여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직에 나와 교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현직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전북좋은교사모임’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전북좋은교사모임은 소명, 영성, 전문성을 균형 있게 갖춘 기독교사로서 사랑과비전으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차세대 리더를 길러 내어 무너진 가정과 학교를 회복시키며, 정의로운 사회와 세계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함께 모인 비전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 모임의 규모나 활동내용은?



2010.6.28일 전체모임모습

전체정기모임은 매월 1회 세미나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월요일에는 지역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모임은 전주, 익산, 군산, 남원, 부안, 진안, 장수에서 5~15명씩 모이고 있습니다. 회원으로 활동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은 70여명 정도 됩니다.

또한 교사 전문성에 대한 모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동학습, 행복한수업만들기, 영어연구모임, 미술치료, 미디어 전문 모임이 있습니다. 전문성모임에서 축적 된 경험들은 각종 연수에서 다른 일반 선생님들에게 전달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교대에서 이루어지는 여름직무연수 ‘생명력 있는 학습운영’에서 각 전문성모임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하나로 엮어서 연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자율 직무 연수를 신설해서 협동학습을 주제로 30시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매학기 예비교사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기마다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신청하고 수강하고 있습니다.

■ 그간의 성과나 한계를 만한다면?

꾸준한 전문성 모임을 통하여 축적된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전주교대 직무연수나 예비기독교사 아카데미를 열어 좋은교사의 사명과 꿈을 갖게 예비기독교사 아카데미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원들이 10년 미만의 젊은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육계와 학교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흡합니다. 같은 비전을 가진 경력 있는 선배 교사들의 경험과 조언이 필요할 때 미땅한 회원이 없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교사 사역에 너무 집중해서 학생들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또 하나의 한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교육대학교를 모태로 모인 모임이어서 중등 선생님



예비기독교사아카데미

들의 참여가 없습니다. 간혹 중등 선생님들께서 모임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직 중등 선생님들을 위한 모임이 없어서 함께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 기억에 남았던 행사나 사업은?

1998년 전주교대 안에서 임용고시문제로 한 기독교학생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학생이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건이후,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전주교대기독교선교연합회’ 모임이 결성되었고, 모임 구성을 위해서 98년 첫 정기총회를 했을 때 모두 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조직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모임이 예비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좋은교사를 꿈꾸는 사람들(gvf)’이라는 모임이 되었고, 현직교사를 중심으로 한 ‘전북좋은교사(fgt)’ 모임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현직교사와 예비교사 100여명이 모여 자체 비전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12번째 수련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적 이슈를 바탕으로 대안을 찾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찾아가는 수련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성과급의 십일조를 헌금하여서 그 돈으로 학급 학생들 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금액만큼 담임교사에게 지급하여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절차나 제약은 없고, 수학여행이나 각종 체험학습 등 수익자 부담이 필요한 경우 가정 형편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비전 수련회

■ 앞으로의 활동 전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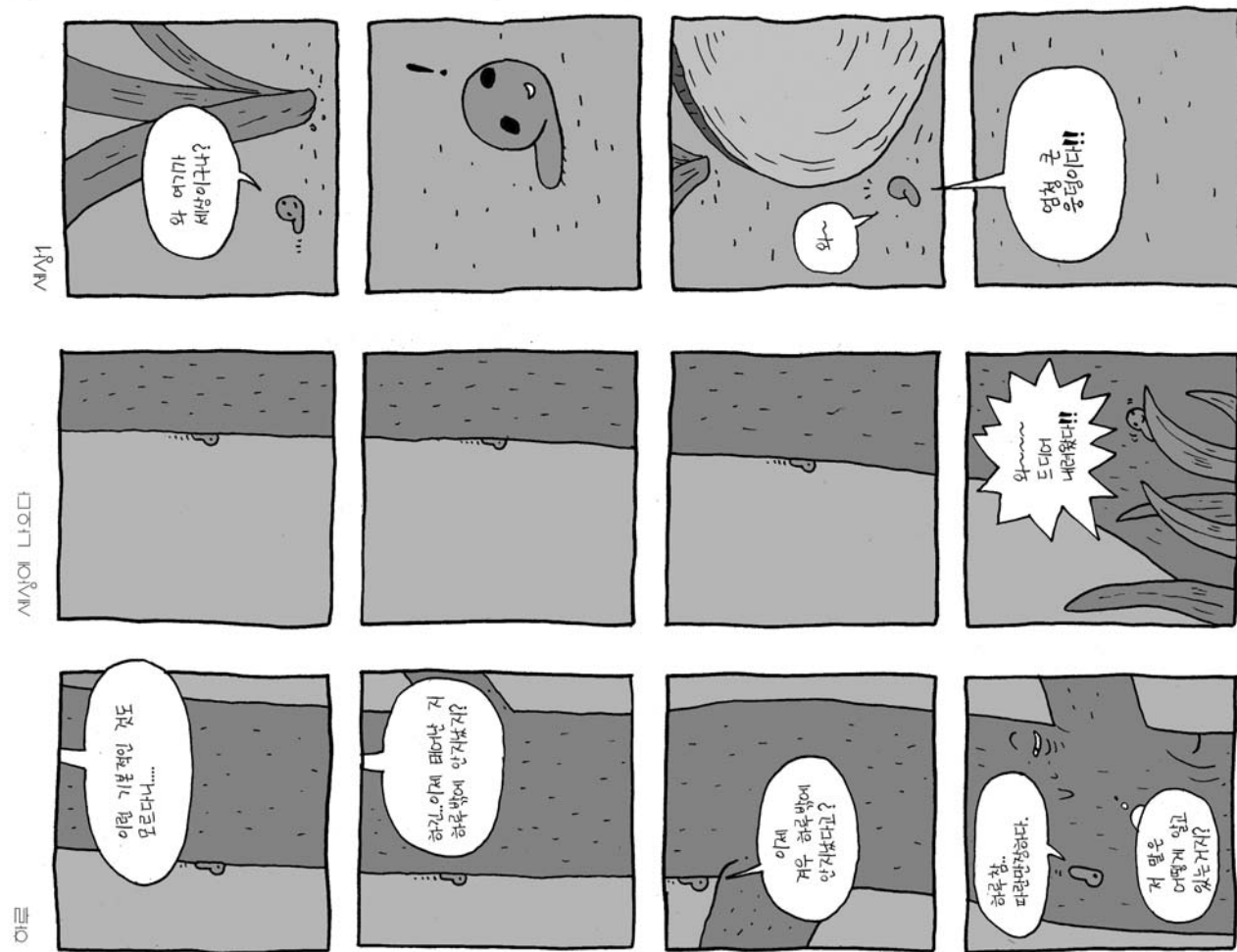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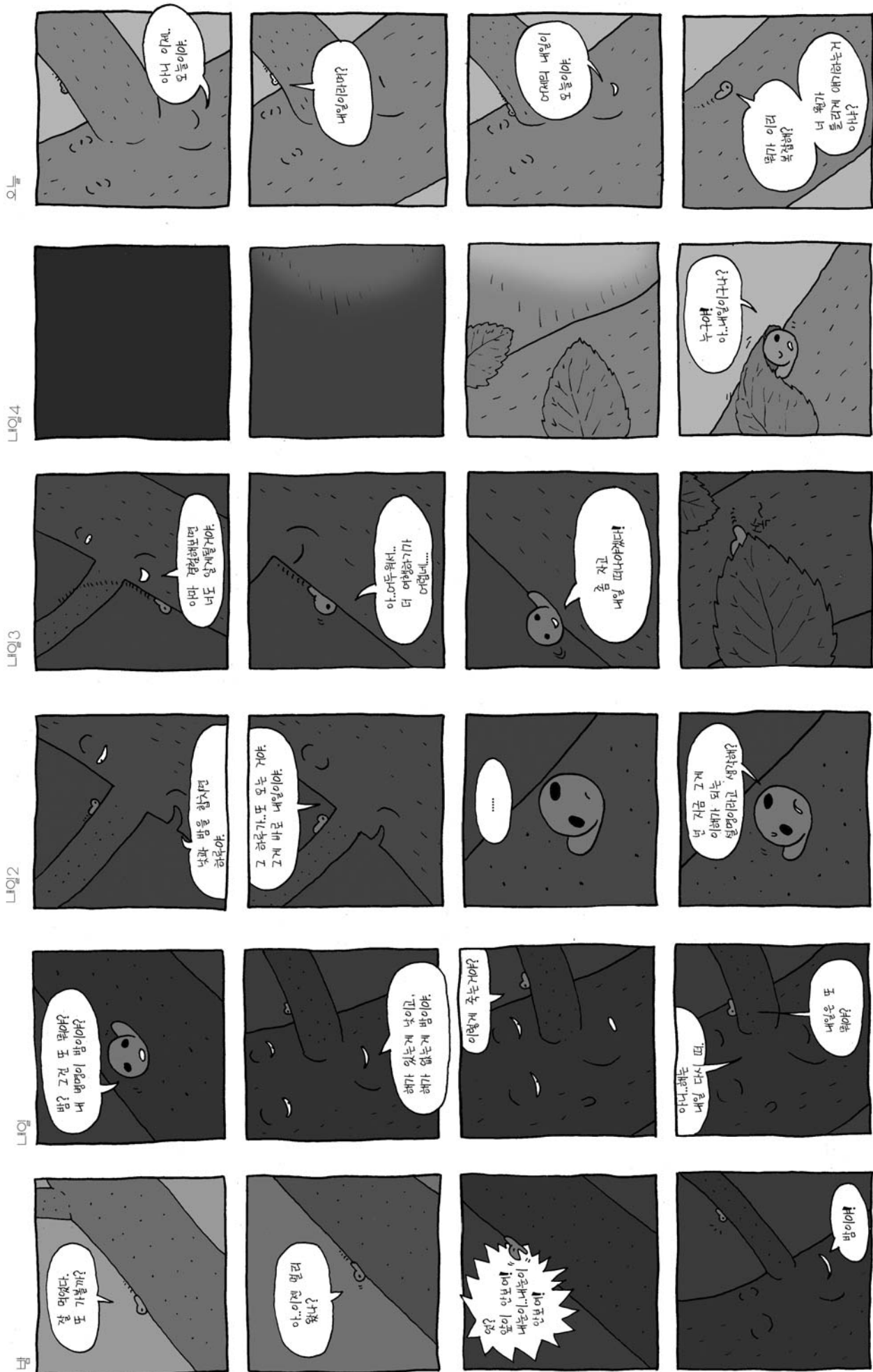
제도를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와 못지않게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임은 사람을 준비하는 일에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교사가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사 수에 비한다면 아주 적은 수이지만 바다가 2~3%의 소금으로 짭짤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임의 선생님들이 교육계의 소금이 되어서 교육을 새롭게 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현재는 혁신학교에 대한 준비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몇몇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공교육 안에서의 새로운 학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상황이 어려웠고, 선배 교사들의 연합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의 성공 여부는 교사의 열정과 준비된 교사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모임보다도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기에 공교육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선생님들과 함께 연대하여 준비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더욱 크리라 생각합니다.

■ 기타하고 싶은 이야기...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무런 사익 없이 스스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준비해 가는 길이 외롭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특히 주로 젊은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 있으신 선배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사들을 깨우고,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해서 대의를 이루어 갔으면 합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땅에 살아도 하늘을 보고, 현재를 살아도 내일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선생님들과 전북좋은교사모임의 선생님들이 있어서 어려운 교육 현실에서도 내일의 새로운 교육을 그려봅니다. 우리 교육에 ‘희망’이 보입니다. 앞으로 전북좋은교사모임이 전북교육에 ‘희망’이 되도록 꿈을 품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새 가족이 되신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 신입회원(가입일순)

김승희(학부모)	나경순(전안부귀중)	전철만(학부모)
조상희(학부모)	공지현(전주조춘초)	이혜정(학부모)
박용선(예수대학교 기획실)	송정미(임실마암초)	서정호(전주양지중)
이현근(임실지사초)	박현혜(전주신동초)	김부진(학부모)
김철환(학부모)	조미영(전주술내고)	권기석(전주공고)
기명숙(학부모)	김재길(전주고)	엄정배(전주공고)
오재혁(학부모)	양해주(남원산동초)	오창록(전주공고)



후원계좌
전북은행 543-13-0310862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약정해주신 월 후원금은 약정기일(2일/23일)에 출금되며, 혹 통장 잔고부족 및 가타사유로 출금이 안된 경우 다음 월에 합산하여 출금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내역 중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905-0218

- ▶ 민주화운동의 원로이시고 본원을 항상 격려해주시는 최형선생님께서 36,000원 통일성금을 보내오셨습니다. 북녘어린이콩우유보내기사업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 ▶ 전북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가 주최한 순창지역간담회가 지난 7월1일 저녁, 순창옥천골식당에서 13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추진 방향, 순창지역 교육 현안, 풍산초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활발한 정보교류와 진지한 토론이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일고 박일범교장선생님께서 사주신 저녁식사도 꿀맛이었습니다.
- ▶ 본원 원장인 최순삼 선생님이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혁신 TF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 ▶ 전라북도 교육청 혁신학교추진위원회 추진위원으로 본원회원인 최병훈, 정우식, 이영환선생님이 위촉되었습니다.
- ▶ 9월 17일(금) 제24차 이사회를 통하여 김영춘(술내고)교사와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집행위원장을 본원의 자문위원으로 위촉 하였습니다.

「북녘 어린이 콩우유사업」 후원자 모집

더 기다리면 늦습니다. 북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우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매일 1구좌 5,000원씩의 후원금을 모아 평양 양각도 타아소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보내는 「북녘 어린이 콩우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5,000원이면 북측 어린이 1명에게 매일 1잔의 콩우유가 공급됩니다. 남측에서 기계와 콩우유 재료를 보내면 북측에서 매일 신선한 콩우유를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006년 2월에 시작하여 현재는 약 200여 구좌(매월 100여만원) 정도가 매월 보내지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받으신 회원 여러분들께서 혹시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두 구좌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 동료들에게 권해주시고 기존 회원도 증좌가 가능합니다.



신청서가 홈페이지(blue21.or.kr)의 [주요사업][통일마당]에 있습니다.
작성하시어 담당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회원 가입 원서

1.개인 정보

※ 추천인:

이름	(남, 여)	생년월일	
학교명		담당 교과	
학교 주소		학교 전화	
손 전화		집 전화	
E - mail		우편물수령	☐ 자택 ☐ 직장
직장 주소			
자택 주소			

2. CMS 자동이체 (아래 사항을 작성해 주십시오) 매월이체일자(☐ 2일 ☐ 23일)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명 : 계좌번호 :	월 이체액	회비 1만원 + 후원금 ()만원
* CS 자동이체에 동의합니다.			

3. 관심 분야(2개 √표)

() 청소년 정책	() 통일 · 역사	() 성교육
() 청소년 인권 · 복지	() 지역교육 · 교육자치	() 학부모 교육
() 청소년 문화 · 동아리	() 환경	() 인터넷 · 정보
() 독서교육	() 학급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 초등교육	() 진로 · 상담	() 기타

※ 홈페이지(www.blue21.or.kr)에서도 간편하게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독서한마당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밤

- 소외계층 청소년 돕기 -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1999년 '전북청소년교육연구소'로 시작해서 2005년 2월에 '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한 지 6년. 언제나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문화원은 올해도 교육NGO로, 또 청소년 단체로서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교실/캠프, 체험교실, 통일한마당, 초청강좌, 교사연수' 등의 활동을 씬 없이 펼쳐왔습니다.

한해 사업을 총화하고 회원 단합을 꾀해온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밤'이 올해엔 '어린이/청소년 독서한마당' 행사를 곁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독서한마당'은 지난 1년간 우리 문화원이 전개한 어린이/청소년 독서 활동을 총화하는 한편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독서의식을 함양하고, 교사들의 독서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마음들을 모아 어려운 소외 계층 청소년 돕기 사업도 병행하려 합니다.

항상 문화원에 마음주신 모든 분들을 모십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 이미영 · 원장 최순삼

일시: **2010. 11. 20** (토) 오후 2시~7시 | 장소: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청소년 독서한마당 (전시/체험 부스 운영)	2010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밤
- 시간 : 오후 2시 ~ 5시 - 장소 : 국립전주박물관 문화체험관 외 - 대상 : 초등학교생, 중 · 고등학생, 일반인	- 시간 : 오후 5시 ~ 7시 - 장소 : 국립전주박물관 대강당 - 대상 : 회원, 초 · 중 · 고등학생, 일반인
전시마당 : ·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교실 운영 사례 발표 · 독서문화교실 도서 전시 · 독서캠프의 역사 전시 · 독서 자료집 전시·독서교실/캠프, 교사연수 · 책과 함께하는 사진전	제1부 기념식 : 17:00~17:30 제6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 시상식 2010활동보고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 : 전북지역에서 청소년 교육과 문화 인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조성에 공로가 큰 단체/개인을 발굴하여 그 공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창립 첫해부터 시상해왔다.
체험마당 : · 책갈피 만들기 · 부모와 함께 편지 쓰기 · 전통놀이 - 팽이치기, 투호, 사물놀이, 골패 · 도서 판매	제2부 문화공연 : 17:30~19:00 · 초등 어린이 합창 - 완산초(지도교사: 신성하) · 교사 합창 - 전주공고, 초등교사 · 교사 판소리 - 김금희(원광예술정보고) · 첼로 연주 - 소중연(전북기계공고) · 색소폰 연주 - 김홍식 교장 외 (반주: 유혜원)
전체마당 : · 독서 골든벨 · 작가 초청강연 - 안도현 시인	



www.blue21.or.kr

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55-8(3층) ☎ 063) 905-0218 Fax 063) 227-0650